**노동조합과 사회연대경제(the Solidarity Economy): 퀘벡 사례를 중점으로**

저자: Yvon Poirier

* 논문 출처: "연대 경제 1: 사람과 지구를 위한 대안” pp. 99-113 (원문: Solidarity Economy 1: Building Alternatives for the People and the Planet)"
* 편집자: Emily Kawano, Thomas Neal Masterton, Jonathan Teller-Elsberg
* 펴낸곳 : 대중 경제학 센터(Center for Popular Economics), 미국 메인주 암허스트 소재.
* 출간일: 2010년 6월
* 온라인 : www.lulu.com

퀘벡 지역의 노동 조합은 투자기금investment funds과 신용조합credit unions을 조성하고 비영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사회연대경제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를 세워가는 일에 힘써왔다. 특히 노동조합 중 CSN the Confédération des Syndicats Nationaux, 국가노동자조합은 사회연대경제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어떻게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참여할 수 있었을까? 이 글은 CSN의 이야기를 일부 담아보고자 한다[[1]](#footnote-1).

이 글은 주로 연대경제포럼The Forum on the Solidarity Economy에서 발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쓰여졌으며, 지난 수개월간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자료들도 포함되었다. 이 글을 통해 노동조합이 사회연대경제를 세워가는 일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찰을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논문은 저자가 퀘벡 지역의 노동조합인 CSN에 참여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서술했다. 1968년부터 대학교수를 은퇴했던 1997년에 이르기까지, 나는 약 30년 간 나의 지역 조합, 지역내 연합회, 퀘벡 주 단위에서 활동했던 노조활동가였다. 캐나다가 아닌 다른 국가의 독자들에게 퀘벡은 주라기 보다 한 국가(nation)로 여겨진다고 일러두고 싶다. 퀘벡은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곳이고, 프랑스 이외의 국가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활동은 주로 CSN에서 이루어졌다.

**퀘벡 지역 노동조합의 역사: 미국과 가톨릭의 영향을 받다**

퀘벡의 노동조합은 두 가지 역사적 뿌리가 있다. 첫 번째는, 미국 노동조합이 캐나다의 많은 노동 조합들을 이끌어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세기 미국의 노동조합 중 하나인 ‘노동 기사단Knights of Labour’은 캐나다와 퀘벡 주의 많은 움직임들의 배경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의 노동조합들이 국내 조직으로 세워져 국제적 조직과 연계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특이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 초, 대부분의 캐나다 노동조합들은 미국 노조의 일원이거나 이들과 제휴하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많은 캐나다 노동자들은 북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일례로, 미국 철강노조United Steelworkers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조합들 중 하나이며 많은 캐나다 노동자들이 소속되어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캐나다의 일부 노동조합들은 미국의 노동조합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다. 한 예로, 캐나다 자동차 노동자조합the Canadian Automobile Workers의 경우 1984년에 전미 자동차 노동 조합United Auto Workers으로부터 독립했다.

미국 노동조합과 양 축을 이루며 캐나다 노동조합이 세워지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친 두 번째 역사적 뿌리는 유럽과 가톨릭이다. 1891년 5월, 교황 레오 13세는 회칙 편지, 레룸 노바룸Rerum Novarum을 출판하여 “많은 노동자들은 가난과 고통에 살고 있다.” 라는 사실을 규탄하였다. 그는 ‘사회주의 무신론’도 비판하였다. 이는 가톨릭 노동조합을 이끄는 주요한 신념으로 자리잡았다. 1960년대까지 퀘벡에서 가톨릭 교회가 주류 사회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레오 13세의 신념을 바탕으로 많은 노동 조합들이 설립되었다. 1921년, 다양한 가톨릭계 노동조합들은 가톨릭 노동조합Canadian Confederation of Catholic Unions을 설립했다. 1960년, 가톨릭 노동조합은 비종교 기관으로 탈바꿈했고, 기관이름도 CSN the Confederation des Syndicats Nationaux[[2]](#footnote-2)으로 바꾸었다.

**퀘벡 사회의 개요**

퀘벡 노동조합의 역사와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퀘벡 사회 경제의 역사를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퀘벡 주는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가 있는 주로, 캐나다 전체 인구 3천4백만명 중 8백만이 거주하고 있다. 80%의 퀘벡 인구가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다(캐나다 타 지역의 경우 5% 미만이 프랑스어를 사용한다). 퀘벡에는 프랑스권 문화와 프랑스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긴 투쟁의 역사가 있다.

영국이 신 프랑스 New France, 1608년에 퀘벡 시에 세워진 프랑스 식민지의 이름 를 정복한 후, 영어를 사용하는 부르주아들이 경제, 특히 재정 분야를 장악했다. 당시 영어를 사용하는 부르주아들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차별 정책을 취했고, 이로 인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극심한 빈곤과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차별정책에 대항해 퀘벡의 분리독립 혹은 강력한 자치권을 주장하는 사회운동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분리독립안을 두고 두 차례의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실시된 국민투표(1995년)에서 분리 독립안은 50.1%의 반대로 부결되었는데, 이는 49.9%의 주민들이 분리독립을 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리독립운동은 강한 국가정체성을 불러일으켰고, 이로 인해 퀘벡을 하나의 국가로 여기는 의식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저항과 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역사는 사회운동 발전의 역사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다. 노동조합운동, 그리고 빈곤과 소외에 대응할 경제적 도구로서 협동조합운동이 함께 발전하였으며, 조합과 같은 사회운동에 힘입어 사회 내에 연대의 정신이 항상 존재해 왔던 것이다.

퀘벡은 최근 매우 빠르게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겪었다. 1960년에서 1970년까지 10년이란 단기간동안, 역행하던 보수 사회는 진보적인 사회로 변모하였다. 스칸디나비아 모델과 비슷한 형태의 현대적인 복지 국가로 향한 변화는 깊고 심오하여, 조용한 혁명quiet revolution이라 불리워 졌다.

**협동조합과 비영리단체**

캐나다는 사회적 경제 중 가장 역사가 깊은 협동조합 분야에서 OECD국가들 중 제일 발전된 나라 중 하나이다. 특히 재정분야에서 그러하다. 더 오래된 사례가 존재하긴 하지만, 최근 이뤄지고 있는 소비조합운동은 알폰스 데자르댕Alphonse Desjardins이 그의 아내 도리미네Dorimene의 도움을 받아 1897년 첫 신용조합을 세운 것에서 시작되었다. 교회의 도움을 받아 이 모델은 지역 전체로 확장되었고,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오늘날 데자르댕 운동 The Desjardins Movement은 1,520억 달러 이상의 자산과 58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퀘벡 최대, 그리고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금융기관이 되었다. 그리고 퀘벡 성인 인구의 80% 이상이 조합원이다.

193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협동조합은 여러 분야에서 만들어 졌다. 작은 마을들에도 신용조합, 생협 식료품 매장, 농업협동조합이 존재한다. 현재 3,000개 이상의 비금융협동조합은 매년 100억달러 이상의 수입을 거두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 ∙ 생협 ∙ 산림협동조합 ∙ 노동자 협동조합∙ 홈케어협동조합 ∙ 주택협동조합∙ 장례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소비조합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정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일반 기업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 창업 3년차 생존율의 경우, 협동조합의 생존률은 75%에 이르는 한편 일반 사기업은 48%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10년이 지나면 협동조합의 창업 생존률은 40%지만 일반 사기업은 그의 절반인 20%밖에 되지 않는다.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연대조합solidarity coops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이탈리아의 사회협동조합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어우러진 협동조합multi-stakeholder coops'을 의미한다[[3]](#footnote-3).

지난 30년 동안,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회사법 내 비영리 규정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몇몇 비영리단체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시작한 반면, 협동조합법 대신 규제가 더 적은 회사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어린이집 운영 등 많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법에 근거한다. 하지만 주택협동조합 같은 경우, 재정지원 부족으로 비영리 모델이 차선책으로 쓰인다. 공동체 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의 경우도 그러하다. 일부 비영리단체들은 수익성사업과 비 수익성 사업을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계치를 구하기 어렵다.

**퀘벡의 노동조합**

퀘벡의 노동조합화 비율은 40%로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지난 30년 동안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조직 내 노동조합결성(노동조합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감안할 때 매우 인상적인 수치이다. 미국의 경우 노동조합화 비율은 14%이다.

이러한 높은 비율에는 퀘벡 사회의 문화뿐만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있다. 첫째로, 노동조합을 정부, 사업가와 함께 사회적 동반자 social partners로 여기는 스칸디나비아와 독일의 사회민주주의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선견지명을 보인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다. 둘째로, 전 세계의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이 단체교섭권, 노동자권리 보호에만 그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데 반해 퀘벡의 노동조합들은 양성평등 ∙ 평화 ∙ 가난 ∙ 선거법 개정 ∙ 보건 ∙ 교육 ∙ 성소수자 차별 철폐 ∙ 환경 등 대부분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퀘벡의 노동법은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진보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캐나다의 브리티시콜롬비아주는 퀘벡주의 노동법을 모방해 주 노동법을 개정했다.) 퀘벡에서 일반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노동자들(50%+1)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로 서명하면, 장관은 노동조합을 승인한다. 합법적인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법은 매우 잘 이행되고, 노동자들과 기업은 세련된civilized 노사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노동법은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없을때 중재자가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에 우호적인 노동법 하에서도, 월마트와 맥도날드와 같은 반노조 성향의 다국적기업과 대부분의 대형은행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 내 노조를 결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퀘벡의 노동조합들**

**2008/2009년 통계(근사치)**

**퀘벡 노동자 총연맹 Fédération des Travailleurs du Québec (FTQ)**

캐나다 연방 퀘벡 주 노동회의 The Québec province Federation of the Canadian Labour Congress (CLC)

철강노조Steelworkers의 경우 미국 노동조합과 연계되어 있다.

조합원 수: 450,000명

민간부문 90% – 공공부문 10%

**국가 노동자 연맹 Confédération des syndicats nationaux (CSN)**

회원중 퀘벡지역이 99%.

조합원 수: 275,000명

민간부문 40% - 공공부문 60%(주로 보건 분야)

**기타**

CSQ 조합원 수: 170,000명 (교육분야 종사자 100,000명)

CSD 조합원 수: 약 70,000명 (대다수 일반기업 종사자)

CLC 조합원들 중 퀘벡 노동자 총연맹(FTQ)에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 수: 약 75,000명

SFPQ & SPGQ: 공무원 50,000명 소속

간호사: 40,000명

작은 노동조합들: 약 50,000명

**연대경제의 형성: 초창기(1970-1995)**

1970년-1995년에는 1970년대 오일쇼크, 아시아로의 제조업 이전, 퀘벡과 다른 OECD국가들 내 장기간의 구조적 실업 등 굵직굵직한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다[[4]](#footnote-4). 당시 노동조합들은 정부가 고용을 증진하는 정책을 입안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완전고용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조치들을 요구하면서도, 퀘벡의 노동조합들은 스스로 완전고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나갔다.

**데자르댕 연대경제기금 Caisse d’économie solidaire Desjardins: 혁신적인 신용조합**

1971년, 퀘벡의 CSN 조합원들은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 새로운 신용조합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개별 이용자들에게 예금과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의 '일반적인' 신용조합과 달리, 새로운 신용조합은 공동체에 초점을 맞췄다. 새로운 신용조합은 예치금에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대신 가정 난방용 기름 공동구매와 같은 공동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조합과 개별 조합원들을 포함한 신용조합 조합원들은 일부 예금에 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 동의했다. 이렇게 모인 기금으로 신용조합은 공동주택을 짓는 협동조합에게 매우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주거나 파업에 들어간 노동자들에게 무이자 대출을 제공했다.

1979년, 이 신용조합은 실시간 계좌이체와 같은 컴퓨터를 기반한 서비스의 필요 등으로 인해 데자르댕과 손을 잡았다.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는, 다른 노동자 신용조합들과의 합병이다. 합병 이후 신용조합의 명칭은 데자르댕 연대경제 기금(Caisse d’économie solidaire Desjardins)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수년간, 교직원 노동조합과 공무원 노동조합과 같은 다양한 노동조합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했다. 이 연대경제기금은 데자르댕의 550개 신용 조합 중 하나이면서도, 조합의 설립이념인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사회연대경제를 함께 구축하기 위해 노동자 예금을 사용한다'는 철학을 지켜나가고 있다.

2010년에 이르러, 데자르댕 사회연대 기금은 퀘벡 사회연대경제의 중심점이며,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 중심 경제의 모범 사례로 여기고 있다. 특히, 기존의 설립이념을 지켜나가면서도 은행들이 준수해야 할 모든 의무와 규칙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5]](#footnote-5).

**MCE Conseils : "노동조합에 재정 전문가를"**

1987년, CSN은 노동조합을 다양한 방식으로 도와주는 비영리 컨설팅 회사인 MCE Conseils를 설립했다. MCE Conseils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회사가 공장을 닫기로 결정했을 때 노동자들이 노동자 협동조합을 세워 그 공장을 인수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돕는다. 혹은 노사간의 단체 교섭 시 개입하여 사용자측의 노동자 임금감축 근거인 재무보고서 등을 분석하고, 노조와 노동자의 관점에서 기업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의견을 제공한다. 수년간 MCE Conseils는 퀘벡 지역의 많은 기관들뿐만 아니라 브라질, 멕시코와 같은 다른 나라의 많은 기관들과 연계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6]](#footnote-6).

**Bâtirente: 은퇴 저축 예금**

1987년, CSN은 Bâtirente란 은퇴 저축예금을 도입했다. 이는 조합원들의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한 공동 저축 기금이다. 다음 문단에서 설명할 노동자기금과 달리, 이 저축에는 면세혜택이 없다. 여러 은행과 투자기관들이 은퇴 저축 예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연금 계획이 없어 CSN은 Bâtirente를 도입하게 되었다. Bâtirente는 사기업 펀드가 아닌 노동조합이 기금을 운용하며, 기금을 함께 모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상품이다. 회원의 수요에 맞추어 저위험에서 고위험에 이르기까지 11개의 다양한 투자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8년말 기준으로 7억 5천만 달러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7]](#footnote-7)

**노동자 연대 기금(FSTQ): 혁신적 접근법**

캐나다는 공공분야와 대기업만 퇴직 연금 적립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변호사나 의사와 같은 전문직종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퇴직 연금 적립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은퇴 이후를 위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는 미국의 개인 비과세 은퇴 저축 상품인 IRAs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와 유사한 비과세 은퇴 저축 상품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을 도입했다. IRAs와 RRSP 모두 비과세 적용 상품이다. 은퇴 저축 상품에서 예금을 인출할 때만 소득세가 적용된다.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은퇴 저축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

1984년, 퀘벡 노동자 총연맹(FTQ)은 퀘벡 정부에 노동자들의 연금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것을 요청했다. 노동자 연금 기금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은퇴후 저축을 확장하는 데 투자된다. 퀘벡의 노동자 연금기금이 특별한 까닭은 연금 기금 운용 목적을 ‘연금 기금 성장 극대화’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30%의 세금 공제는 연방정부(15%)와 지방정부(15%)가 보조하고 있다. 1984년 법으로 제정된 이후, 노동자 연대기금 (Fonds de solidarité des travailleurs du Québec, FSTQ)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현재 65억 달러 규모의 퀘벡에서 가장 큰 투자기금 중 하나가 되었다.

노동자 연대기금(FSTQ)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8]](#footnote-8).

1) 퀘벡의 여러 비즈니스 영역에 투자함으로써, 퀘벡의 사업가들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보호하도록 유도한다.

2) 퀘벡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직업 훈련을 제공한다.

3) 노동자와 사업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전략적 투자를 통해 퀘벡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4) 노동자들에게 퇴직 연금의 필요성을 알리고, 노동자 연대 기금에 출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동자연대기금은 저축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 며 투자자들의 노동자연대기금에 대한 신뢰 향상, 공정한 연금투자이익금 분배, 노동자와 납세자들의 은퇴 이후 저축예금 가입 장려 등을 도모하고 있다. 노동자 연대기금은 또한 비과세혜택으로 인기가 많다. 예를 들어 교사나 자동차 제조업 종사자가 1년에 50,000달러를 버는데 노동자연대기금FSTQ에 5,000달러를 투자했다고 해보자. 노동자 연대기금 투자자는 투자한 5,000달러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는다. 소득세를 약 30%정도 낸다고 했을 때, 투자자는 소득세 신고시 투자금인 5,000달러에는 비과세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1,500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30%의 세금공제혜택이 추가로 제공되기 때문에 총 3,000달러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즉, 5,000달러를 투자할때, 총 금액 중40%인 2,000달러만 비용이 된다. 개개인의 소득에 따라, 30-35%를 세금비용으로 지불하기도 한다[[9]](#footnote-9).

납세자이면 누구나, 기업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이 기금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원들이 투자자의 대다수이며, 이는 이사회 구성비율에 반영된다. 노동자 연대기금FSTQ 법은 노동자연대기금FSTQ이 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주식 구매, 대출 서비스 제공, 대출 보증 등의 방식을 통해 연금 기금의 최소 60%를 퀘벡 경제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그 나머지는 보증부채권guaranteed bonds 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FSTQ는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노동자 연대기금FSTQ은 퀘벡 노동자 총연맹 FTQ 소속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 투자하고 있다. 즉, 노동자 연대기금은 이러한 원칙을 통해 각 회사들이 노동조합에 재정상황을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도 회사 내에서 상당한 협상력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1997년까지 노동자 연대기금FSTQ은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사회적 기업에는 그다지 투자를 많이 하지는 않았다.

1995년, 캐나다 정부는 CSN이 제출한 두번째의 노동자연대기금인 Fondaction (action fund)의 설립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는 협동조합의 발전과 고용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노동자 연대기금Fondaction법17번째 조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10]](#footnote-10):

*17. 기금이 주로 투자되는 곳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들이 운영하는 회사, 협동조합 등 모든 주주나 조합원들에게 공평하게 투표권을 배분하는 기관*

*2. 노동자들이 직접 업무를 정의하고, 조직하고, 통제하는 데 참여하도록 조직에서 허용하는 기관*

*3.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약속, 실천, 활동을 포함한 친환경적인 접근법을 도입한 기관*

이처럼, 새로운 노동자연대기금Fondaction의 목적은 기존 노동자연대기금 FSTQ보다 훨씬 더 사회적 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17조 이외의 노동자연대기금Fondaction법 조항은 기존 노동자연대기금FSTQ과 꽤 유사하다. 새 노동자연대기금Fondaction 이사회가 CSN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 그리고 퀘벡 지역의 회사들에 연금 기금의 최소 60%를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도 기존 노동자연대기금FSTQ과 유사한 점이라 할 수 있다. 2009년 5월 기준으로 새로운 노동자연대기금Fondaction에 적립된 예금은 약 6억 5,000만 달러이다.

**연대경제의 건설: 제 2부- 1996년~현재**

1990년대 초,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회운동들이 전개되었다. 많은 협회와 비영리단체들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포함한 경제적 해결책을 제안하는 사회운동을 시작했다.

특히, 1995년 6월에 여성단체들이 전개했던 '빵과 장미[[11]](#footnote-11)'란 구호를 앞세운 시위는 퀘벡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다. 여성단체와 노동조합을 포함한 여러 동맹들은 퀘벡의 동부와 서부지역에서부터 주 수도인 퀘벡시Quebec city로 행진했다. 시위는 정부가 여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가난과 낮은 임금과 같은 여러 사회 경제적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게 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시위자들은 남성들에 비해 훨씬 많은 여성들이 최저임금만을 받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최저임금의 1.5배 인상을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 인프라 를 위한 기금 지원 정책 Social infrastructure funding [[12]](#footnote-12)도입을 주장했다.

1996년, 퀘벡 주정부는 다양한 '사회적 동반자 social partners'들과의 정상회의를 소집했다. 정부의 입장은 높은 실업률과 공공부채를 해결하는 데 앞서 재정적자를 0으로 줄이는 것이었다. 퀘벡주 총리인 국민사회민주당the Parti Québécois (nationalist and social democrat party) 의 뤼시앵 부샤르Lucien Bouchard 총리는 경제사회정상회의Economic and Social Summit를 개최했다. 이 정상회의는 역사상 처음으로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구성원인 정부, 기업, 노동조합과 더불어 사회적 경제 단체들을 초청했다. 경제사회정상회의와 관련된 다양한 분과조직workgroup들이 생겼고, 이 중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분과도 세워졌다. 1996년 10월 열린 경제사회정상회의에서 최종으로 모든 '사회적 동반자'들은 일자리 창출과 빈곤퇴치를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경제를 우선순위에 두는 데 동의했다. 정부와 기업측에서 사회적 경제를 정책화하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노동조합들은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일부 대기업들은 심지어 스타트업 비영리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금융에 몇 백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스타트업 비영리단체에 투자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것으로 우려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최근까지 스타트업 비영리단체를 위해 벤처금융에 꾸준히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이는 사회적 기업들이 꽤 성공적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일부 사회운동과 정부가 일부 서비스를 민영화하려는 시도를 반대하는 일부 노조 사회운동에서는 합의를 이루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해결되었다.

노동조합들, 특히 중요한 공공분야의 노동조합들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FTQ와 같은 일부 노동조합들은 여당과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정부와 공공분야 종사자의 노동계약을 재개하기로 협의했다. 여당인 국민사회민주당 the Parti Québecois (the social democrat sovereignty party)과의 긴밀한 관계로 인해, 노동조합에서도 정부의 기득권 일시 유보[[13]](#footnote-13)결정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CSN은 FTQ와 달랐다. CSN의 조합원 중 거의 60%가 공공분야 종사자였고 공공분야 종사자들이 모인 노동조합의 간부들은 훨씬 더 급진적이었다. 어떠한 반대급부가 없다면 그들은 경제사회 정상회의의 결정에 반대의사를 표명할 것이었고, 이는 퀘벡 사회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었다. 이때 CSN의 위원장인 제럴드 라로즈Gérald Larose는 정부와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빈곤퇴치를 새로운 정책에 포함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회적 경제분야와 벤처금융 지원 이외에도, 회사의 CEO와 직원들이 빈곤퇴치 프로젝트를 위한 모금에 각각 직원1명당 1달러씩 투자하는 3년간의 정책을 시행했다. 3년 후 이 기금은 2억 5,000만 달러 이상 적립되어 퀘벡의 다양한 지역사회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수 있었다.

CSN을 제외한 다른 노동조합들과 기업, 정부가 정상회담에서 동의했던 정책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정책에 대한 CSN의 공공분야 노동조합들의 반발은 꽤 강력했다. 일부 회의 이후 급진적인 CSN 조합원들은 간부들이 우익성향을 띤 정책에 굴복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팔아 넘긴 것이라 비난했다. 이렇듯, 일부 조합원들이 노동계약이 재개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CSN내에서도 합의를 이루는 데 어려움이 지속되었다. 하지만 다행히, 다른 모든 노동조합들과 사회운동조직이 경제사회정상회의 결의안에 서명한 이후 CSN도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샹티에 The 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 du Québec,( 퀘벡의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와 CSN**

CSN은 샹티에The 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 du Québec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샹티에란, 정상회담 이후에 도입될 정책과 정부의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세워진 퀘벡의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즉 퀘벡의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이다. CSN과 더불어 다른 노동조합들, 여성운동단체, 환경단체, 지역개발단체, 어린이집 협동조합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러 사회 운동단체들과 개발단체들이 샹티에the Chantier에 가입했다. 대부분의 협동조합들은 네트워크를 이루기보다 자율적인 운영을 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일부 협동조합의 경우 다른 협동조합들과 관계를 지속하면서도 샹티에에 가입했다.

1996년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 샹티에와 CSN 사이에 협의가 맺어졌다. 그 협의의 주된 내용은 샹티에가 공적 영역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들의 여러 활동들을 어떠한 방식으로던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자택보호 분야home-care 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에서 혈압측정을 하거나 주사를 놓는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CSN은 샹티에가 설립된 직후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샹티에 활동에 간접적으로, 혹은 퀘벡 주 nation 수준에서 참여하고 있다. 2007년 샹티에는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투자와 장기투자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Fiducie 란 신탁자금을 도입했다. Fiducie 신탁자금은 연방정부(2,280만 달러), 퀘벡정부(1,000만 달러), FSTQ(노동자연대기금, 1,200만 달러), Fondaction(노동자연대기금, 800만 달러)의 기금 조성으로 만들어졌다. 총 신탁기금 중 약 40%가 두 노동자 연대기금에서 조성되었다는 점은 무척 인상적이다[[14]](#footnote-14).

**사회연대경제의 주요 참여자, CSN**

이와 같이 CSN은 사회연대경제 이니셔티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제 CSN이 사회연대경제 이니셔티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던 그 요소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CSN의 조직구조를 들 수 있다. 퀘벡 주 내 작은 지역 단위의 노동조합들은 CSN연맹이 세워지기 전부터 활동하고 있었다. 1921년에는 CSN의 첫번째 본부가 있던 퀘벡시티에 노동조합 협의회를 세우기도 했다. 역사가들은 노동조합 협의회가 19세기 말에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CSN의 조직 구조는 CSN연맹, 지역 단위의 노동조합 협의회, 그리고 중앙협의회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중앙협의회central councils는 미국노동총연맹AFL-CIO이나 캐나다 노동의회CLC, the Canadian Labour Congress내에서 운영되는 노동 협의회labor councils와 유사하다. CSN의 경우, 자발적으로 지역 협의회에 참여하는 CLC와 다르게, 이 세 단위의 참여가 의무이다. CLC의 경우 조합원들을 자발적으로 가입시키기 위해 지역 단위의 노동조합 협의회와 중앙협의회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회비는 다소 낮은 편이었고, 이로 인해 재정 및 인적자원에서 불균형이 있었다. 퀘벡 지역의 전국철강노조 조합원은 60,000명인데 비해, 직원수가 비슷한 퀘벡 노동자 총연맹FTQ은450,000명인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CSN 조합원들은 지역 단위의 노조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회비가 높았고, 이로 인해 CSN은 노조관련 사업 이외에 많은 지역적 수준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CSN은 총연맹, 지역단위의 협의회, 중앙협의회란 세 수준의 조직에서 재정 및 인적자원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퀘벡 주 수준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등 중요한 능력을 갖게 되었다. 또한, 지역단위의 협의회 수준에서도 그러했는데, 퀘벡시에서 CSN중앙협의회는 FTQ 의 지역단위 노조 협의회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 단위의 노조협의회를 중점으로 CSN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CSN이 사회연대경제에 앞장 설 수 있던 배경으로 그 지도자들과 목표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1920년대 퀘벡시의 CSN 위원회는 퀘벡 시장이 시 의원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시장 직선제로의 선거법 개정’을 지지했다. 이렇듯 1920년대에도 CSN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이나 노동자 권리에만 관심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했다. 전 세계의 여러 노동조합들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지만 퀘벡의 노동조합들, 특히 CSN의 경우 지난 50년 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1960년대 퀘벡 사회는 급격한 사회 변동을 겪었고, CSN은 이 과정에서 퀘벡 사회가 진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CSN은 퀘벡 정부가 주민들이 신용, 대출, 가계와 관련된 개인 채무 해결 등 경제적 교육을 제공하는 공동체 조직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거의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는 여전히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ACEF Association Cooperative Economie Familiale, 역: 가계경제 협동조합 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1968년 CSN 총회에서 이들은 '제 2전선 second front'[[15]](#footnote-15)이란 전략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CSN 내부문서(2006)는 제 2전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제 2전선은 노동조합의 투쟁이 소비와 대중들의 삶과 관련된 일반 시민들의 시대적 투쟁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노조 조합원들은 식품 협동조합, 생협, 협동주택을 세워나가는 데 참여 해야 한다. 또한 CSN은 시민 위원회의 보건 분야업무, 특히 일반 시민들을 위한 병원을 건립하는 것을 돕는 데 앞장 설 것이다. 뿐만 아니라, CSN 조합원들은 여성단체들과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세워나가는 일을 도울 것이다[[16]](#footnote-16).”

제 2전선의 비전은 CSN이 1971년 사회연대기금 Caisse d’économie 을 세우고, 지금까지 이 글에서 다뤘던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참여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예를 들어 CSN 노동조합에 가입한 구급대원들은 노조가 모금한 공적 기금으로 운영되는 구급차를 이용하며, 이는 노동자 협동조합이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최근에는 CSN은 공정무역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퀘벡 내 지역사회 수준에서 퀘벡 전체 수준에 이르기까지 CSN은 공동체 경제발전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CED)[[17]](#footnote-17)의 이사진으로 활동하거나 평화운동, 국제연대운동, 양성평등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2006년 CSN은 노동조합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포괄적인 사회연대경제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에 앞장설 것이다:

*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를 지향하는 일
* 정부가 규제와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일
* 개발과 투자부문에서의 민주화와 기업 운영의 민주화
* 고용을 증진하고 소외된 계층을 돕는 일
* 공공 서비스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 일
* 지역 사회 공동체 내 연대를 이루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일”

이 목표는 사회연대경제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대안으로 여기는 다양한 사회운동과 접목되고 있다. 다른 노동조합들처럼, CSN도 국제노동조합연맹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ITUC)의 일원이다. CSN은 기존에 CSN이 도입했던 노동자연대기금인 Fondaction과 Bâtirente 은퇴저축예금, 사회연대기금 the Caisse d’économie, 노동자 관점의 비영리 컨설팅회사인 MCE Conseils와 같은 다양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제적 연대를 이루기 위해 국제개발연대Dévelopement Solidaire International (International solidarity development)를 세웠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는 CSN이 퀘벡에서 노동자를 위한 여러 재정적 보조제도를 도입했던 것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도입하기 위해 CUT 브라질 노조 총연맹과 CSN사이에 공식적인 파트너십 계약이 이루어졌다.

세계의 많은 이들은 퀘벡의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여러 경험들과 노동조합 사례를 세계의 모범 사례로 꼽고 있다. 특히 CSN은 노동조합운동이 시민 경제another economy를 세우는 데 동참하고 있다. 퀘벡의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경험들은 다른 나라에서 자국 내 사회에 그대로 이식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퀘벡의 성공사례와 유사한 이니셔티브를 구사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앞으로의 미래: 사회연대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

이 글은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되었지만 여전히 노동조합과 사회연대경제는 해결해야 할 여러 어려움들을 마주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운동간의 관계가 항상 원활한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큰 협동조합의 경우, 소수의 노동자들만이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신용조합들은 노동조합을 세우지 않고 있다. 몇몇 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 내 노조 결성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CSN과 협동조합운동은 서로 협력하고 있으며 정부가 사회연대경제적 정책을 추진하도록 의기투합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적 수준에서는 서로 협력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노동조합 자체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인 우익성향의 싱크탱크 기관의 공격을 받고 있다. 무역자유화라는 기치 하에 여러 국가들과 노동자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일자리 보호는 노동조합에게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은 19세기의 가혹했던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여러 세력에 대항하면서 민주적인 자본주의를 지키고 새로운 대안책을 제시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있다. 하지만 20세기 말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고, 협력을 주장했던 선배들의 이상을 잃어가고 있다. 노동조합은 홀로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에 맞설 수 없으며 협동조합은 스스로 인간지향적인 경제를 개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도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최근 북미에서 가장 큰 노조인 미국 철강노조the United Steelworkers of America와 세계에서 가장 큰 노동자 협동조합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Mondragon Cooperative Corporation 사이에 노동자 연대기금FSTQ과 같은 '협력'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이 함께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와 지구를 위하여 세계의 경제를 더 옳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다른 사회운동들과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

**저자소개**

이본 포이리에는 캐나다 공동체기반 경제발전 네트워크(the *Canadian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Network, CCEDNET*)의 국제위원회 의장이다. 1997년 대학 교수직을 퇴직하기 전까지 퀘벡의 두번째로 큰 노동조합인 the Confédération des syndicats nationaux (CSN)에 29년간 참여하며 몇년간은 전업활동가로 일하였으며, 2005년과 2009년, 세계사회포럼에 참여하였다.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Intercontinental Network for the Promotion of the Social Solidarity Economy,* RIPESS)의 회원으로 2004년부터 활동하였다. 2003년 이래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에 관한 국제 뉴스레터의 공동발간자이다.

1. 저자는 최신 통계 자료를 제외하고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지 않고, 저자Yvon Poirier가 40년이 넘게 퀘벡의 사회운동에 참여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중점으로 서술했다. [↑](#footnote-ref-1)
2. [↑](#footnote-ref-2)
3. 이탈리아의 사회협동조합에 관해 더 알고 싶다면, https://en.wikipedia.org/wiki/Cooperative#Social\_cooperative 참고. [↑](#footnote-ref-3)
4. 당시 퀘벡과 북아메리카 사회의 분위기를 더 자세히 알기 원한다면, Poirier & Kawano, Visions related to building the solidarity economy and related alternatives in North America (2008.8)” 참조. [↑](#footnote-ref-4)
5. International Newsletter on Sustainable Development #39, June 2007, Yvon Poirier. http://local-development.blogspot.com/ [↑](#footnote-ref-5)
6. <http://www.mceconseils.com/langues.html> [↑](#footnote-ref-6)
7. <http://www.batirente.qc.ca/en/batirente/profile> [↑](#footnote-ref-7)
8. <http://www.fondsftq.com/internetfonds.nsf/VWebTAN/AprAcc> [↑](#footnote-ref-8)
9. FSTQ 홈페이지(<https://www.fondsftq.com/en/reer/pourquoi-choisir-le-fonds/comparer-le-reer-du-fonds.aspx>)에는 기존 캐나다정부에서 시행하는 RRSP비과세 은퇴 저축 상품 와 노동자연대기금FSTQ의 은퇴저축예금을 비교하고 있다. 기존 캐나다 정부가 도입한 RRSP의 경우 30%의 추가 세금공제혜택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저자가 제시한 예시에서 RRSP 투자자의 경우 3,500달러를 지불해야한다. [↑](#footnote-ref-9)
10. <http://www.fondaction.com/> [↑](#footnote-ref-10)
11. 켄 로치Ken Loach의 영화 제목으로도 잘 알려진 '빵과 장미bread and roses'란 표현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본권을 상징한다. 사회주의 노조 운동가였던 로즈 슈나이더먼Rose Schneiderman이 1912년 매사추세츠주 로렌스의 방직공장 파업투쟁 현장에서 한 연설에서 사용된 표현이다. (<http://blog.naver.com/innominata/220061986130>) [↑](#footnote-ref-11)
12. 캐나다의 복지정책 중 하나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공정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적정한 가격의 주택, 유아교육, 어린이집과 같은 사회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 중산층을 늘리고 아이와 노인을 포함한 더 많은 캐나다 국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http://www.infrastructure.gc.ca/plan/si-is-eng.html>) [↑](#footnote-ref-12)
13. 기득권 일시 유보란, 노동자들이 나중에 더 많은 급여나 수당을 받기로 하고 당분간 급여나 수당 삭감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FTQ의 조합원 중 10%만 공공분야 종사자였기 때문에 저항이 적었던 측면이 있다. [↑](#footnote-ref-13)
14. <http://fiducieduchantier.qc.ca/?lang=eng> [↑](#footnote-ref-14)
15. La CSN et l’économie sociale. (CSN 내부 문서), 제 1전선the first front은 단체교섭권과 노동권을 의미한다. [↑](#footnote-ref-15)
16. 이 때 CSN이 여성단체와 부모들과 함께 참여했던 어린이집 건립운동은 이후 어린이집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만드는 기반이 되었다. [↑](#footnote-ref-16)
17. '공동체 경제발전'은 사회소외계층들이 경제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수준에서 직업훈련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을 돕고 있는 단체이다. (<https://ccednet-rcdec.ca/en/what_is_ced>) [↑](#footnote-ref-17)